

“여름철 ACC서 문화 바캉스 즐기세요”

트로트·배리어 프리 전시 등
‘여름밤 낭만’ 하늘마당 개방
문화정보원 도서관, 책 8만권

무더운 여름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책과 예술, 자연을 품은 ‘문화 피서지’로 시민을 맞이한다. 낮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독서와 예술작품 감상이 가능하고, 야외에는 여름밤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꾸며졌다.

●복합전시관에서 만나는 예술과 감성
여름 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이 관람객



의 눈길을 끈다. 복합전시6관에서는 ‘2025 ACC 접근성 강화 주제전-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가 이달 29일까지 열린다. 이 전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배리어 프리’ 개념을 예술로 풀어내며, 국내외 5팀 작가의 신작과 대표작을 통해 참여와 상호작용의 예술을 탐색한다.

복합전시5관에서는 다음달 6일까지 지역작가 초대전 ‘이이남의 산수극장’이 진행된다. 고전 산수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작품들이 남도 자연과 고향의 추억을 담아내며, 담양 병풍산과 영산강 등 지역 정경을 디지털 아트로 재현해 향수와 친근함을 선사한다.

트로트를 주제로 한 이색 전시 ‘애호가 편지’도 관람객을 기다린다. 8월 24일까지 복합전시2관에서 열리며, 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캐나다 등 5개국 13팀이 참여해 도시의 삶과 감성을 트로트로 풀어낸 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화정보원서 북캉스

ACC 문화정보원 도서관은 2900㎡ 규모에 8만여 권의 책을 비치하고 있다. 탁 트인 공간과 세련된 인테리어, 대나무 정원 등 쾌적한 환경은 독서

와 사색에 최적이다. 스테인리스 타공 외벽과 ‘빛의 숲’ 채광정은 자연 채광을 은은하게 담아내며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입구에서는 여름휴가에 어울리는 아시아 여행기, 식물 에세이 등 주제별 추천 도서를 북큐레이션과 신작도서 서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도서가 별도 서가에 마련돼 다양한 문화권의 책도 접할 수 있다.

오디오북 키오스크, 신문·잡지 코너, 시청각 보조기기 등도 준비돼 접근성과 편의성이 돋보인다. 대나무 정원으로 이어지는 휴식 공간은 카페처럼 꾸며져 명상과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광주예술고와 ACC의 협업 전시 ‘잇-다’도 이 공간에서 열리고 있어 한국화와 학생들의 우수작 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

ACC의 대표 힐링 공간 하늘마당은 지난달 31일 재개방해 시민들의 여름 쉼터로 돌아왔다. 6900㎡ 규모의 천연잔디, 제철 화단, 야간 조명이 어우러진 이곳은 버스킹,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펼쳐지는 명소다.

탁 트인 전망과 SNS 감성 사진 명소로도 입소문 나며 MZ세대가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열린마당은 여름철(7~9월) 백일 동안 피고 지는 배롱나무꽃이 장관을 이루며, 그네와 벤치가 마련돼 가족·연인 관람객이 휴식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김상욱 ACC 전당장은 “ACC는 3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국내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시민 여러분이 ACC에서 예술과 자연, 여유를 함께 즐기며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지난 16~17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KoCACA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한 공연예술단체 더현음재가 방문객들을 상대로 부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전남문화재단, ‘KoCACA아트페스티벌’서 유통 역량 키워

지난 16~17일 세종서 열려
지역 공연예술단체 참여
“홍보 등 통합적 지원 노력”

전남문화재단은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6~17일 이틀간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KoCACA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해,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유통 역량 강화 및 홍보 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4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견학은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 유통 확대와 현장 실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8개 공연장 협력 예술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자, 책임심의위원 등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다졌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KoCACA아트페스티벌은 올해 ‘NEXT-CONNECT(넥스트-커넥트)’를 슬로건으로 전국 153개 문예회관과 258개 예술단체가 참가했다. 행사 기간 2000여명의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5000명 이상의 세종시민이 행사장

을 찾으며 성황을 이뤘다.

전남지역 협력 예술단체들은 행사 기간 부스 미팅, 레퍼토리 피칭, 쇼케이스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문예회관 관계자들과의 실질적인 유통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전남문화재단은 각 단체의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물품 제작을 지원, 참가 단체들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도왔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공연예술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작지원뿐 아니라 작품 유통, 홍보, 네트워킹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예술단체들이 전국 단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문화재단은 올해 △극예술창작집단 흥 △사단법인 청강창극단 △더현음재 △극단 청자 △(사)누림 △마실 △더아트컴퍼니 연 △극단새결 등 총 8개 공연예술단체를 공연장상주단체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육성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문화재단 문예창작진흥팀(061-280-58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 기자

전남문화재단, ‘해남 일평리 유적’ 발굴 보고서 발간

“마한 해양문화 중심지 입증”

전남문화재단 국가유산연구소가 최근 ‘해남 일평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백포만 일대에 위치한 일평리 유적이 군곡리 패총, 읍호리 유적, 분토유적 등과 함께 마한 시대 해양문화의 중심 기항지였음을 입증하는 주요 유적의 발굴 성과가 담겨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남군은 2023년 해남 일평리 유적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가유산청의 ‘역사문화권 환경정비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일평리 유적이 전라남도의 마한문화역사 가치를 선도하는 핵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일평리 유적은 구릉 정상부에 ‘고해남성’으로 지정된 일평리성지(죽금성)가 위치하고 사면부를 따라 주거지, 생산시설, 생활 폐기장 등 마한시대 생활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희귀한 복합유적으로 평가받는다. 확인된 주거지 24기 중 19기



해남 일평리유적 발굴조사 1호 주거지.

전남문화재단 제공

는 중첩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주와 재이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마한의 취락 구조와 건축 기술을 복원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로는 발형토기, 외파수발, 장란형토기, 시루, 유공원저호, 솥돌, 철검

등 생활 및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발굴돼 마한인들의 생활상을 연구, 복원하는데 매우 귀중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전남문화재단 누리집(www.jncf.or.kr)을 통해 원문을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박찬 기자

日 최대 OTT 진출 로컬 뮤지션 예능, 광주서 무비토크 개최

오늘 양림동 10년후그라운드서

로컬 뮤지션의 성장기를 담은 음악 예능이 OTT 공개를 앞두고 특별한 행사로 광주시민을 찾는다.

24일 ㈜주스컴퍼니에 따르면 ‘J로컬스타 무비토크’가 25일 오후 7시30분부터 양림동 복합문화공간 10년후그라운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일본 최대 OTT 채널에서 오는 8월 공개되는 음악 예능 상영회와 포크폴리오(김은중, 박경재, 백광흠)의 미발표 싱글을 공개하는 특별 무대, 관객과

의 네트워킹 시간으로 꾸며진다.

먼저 1부에서는 지난해 청춘마이크 ‘J로컬스타’를 통해 기획된 각 지역(진도·장흥·광주·군산·남원)의 대표 유닛들의 활동상을 담아낸 음악 예능 ‘J로컬스타’ 상영회가 진행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그룹으로 결성된 청년들의 성장 모습을 담고 있다. 공연 무대에서만 만났던 예술인의 노력과 숨겨진 에피소드를 예능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8월 일본 최대 OTT 플랫폼 ‘Amazon Prime Video’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어 2부에서 J로컬스타 ‘포크폴리오’의 미발표 싱글 무대가 진행되고,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예술과 음악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토크 시간이 마련된다.

‘J로컬스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한 ‘2024 청춘 마이크’ 전라·제주권에서 탄생한 5개 지역(군산·남원·광주·장흥·진도) 기획 유닛팀들이다.

이번 행사는 ㈜주스컴퍼니, 열린기획, 바닐라씨가 주최하며, J로컬스타 블로그(https://blog.naver.com/j_local_star)를 통해 참가신청할 수 있다. 박찬 기자